

多聯裝로켓의 必要性

D. W. L. Robin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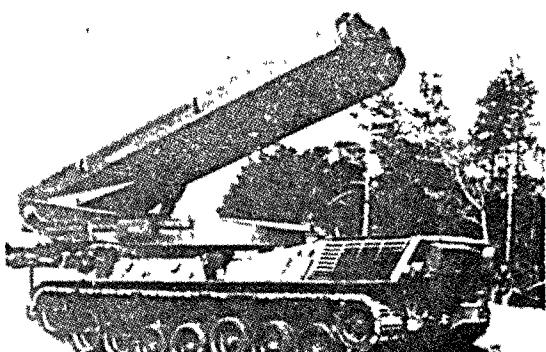
머리말

多聯裝로켓에 대한 論議는 M-107(175mm) 平射砲를 대체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부터 再燃되기 시작했다. 175mm平射砲는 주로 對砲兵射擊에 사용되어 왔다.

多聯裝로켓을 使用하면 大量의 敵機甲部隊를 공격하여 敵攻擊力を 현저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多聯裝로켓 시스템이 現砲兵能力上의 결함을 보완하여 我軍의 主防禦陣地를 공격하거나, 集結地에서 再編成하고 있거나 또는 沮止地點으로 移動해오는 多數의 敵機甲部隊에 대해 효과적으로 短時間내에 多量의 火力を 펴부울 수 있다.

英·獨·伊의 3國共同으로 수행해 오던 RS 80 多聯裝로켓 開發을 1975년에 中斷되었다. 따라서 野戰砲兵이 野砲만을 依存하는 以上 결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RS 80 事業이 中斷된 것은 開發에 대한 接近方法에 대한 意見이 갈라져 RS 80 事業이 지연되고 방해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英國이 開發하려던 RS 80 多聯裝로켓

※ 筆者는 英國陸軍砲兵 中領임

最近에 多聯裝로켓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대두됨에 따라 지난날 RS 80事業에 있어 問題된 사항을 들이켜 보려 한다.

1. RS 80 事業

英國이 RS 80事業을 中斷토록決定한 것은 주로 費用때문이었다. 그當時 모든 分野에서 節減이 요구되고 豫算使用을 신중히 함에 따라 취해진措置이다. 그때까지 RS 80 研究開發을 위해 500萬파운드(약 1,000萬弗)이 사용되었고, 7年間에 소요될 費用은 1억 8,500萬파운드(약 3억 7,000萬弗)에 달할 豫定이었다.

英國 國防相은 事業의 中斷에 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RS 80事業은 원거리의 輕機甲目標를 파괴할 多聯裝로켓 시스템을 開發하기 위한 것으로 이 로켓의 중요한 利點은 다른 長射程野砲에 비해 多量의 火力으로 集中사격을 가할 수 있는 能力を 가진 點이다.

그러나 英國은 一般支援砲兵의 사거리와 効果를 증대시키기 위해 西獨 및 이태리와 共同으로 FH 70* 및 SP 70* 曲射砲를 開發하여 장비함으로써 砲兵能力을 改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事業中斷에 介在되는 理由는 보다 복잡하여, RS 80로켓을 운용하는데 提起된 方法에 관한 것과, 특히 사격 對象目標와 그 効果에 관련된 것이였다.

그當時 調査結果는 多聯裝로켓 弹頭가 戰車를 파괴하는데 費用對效果面에 있어 有効한 結論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APC에 事前破片成型彈을 使用했을 때의 効果에 대해서도 調査가 수행되었다. 이 調査에 의한 費

*譯者註 FH 70 155mm 경인曲射砲,
SP 70 155mm 自走曲射砲

다는 사실이다. 저어도 蘇聯軍에 관한 한 이 對象目標의 裝甲能力은 補強되었다.

西獨駐屯 蘇聯軍의 間接射擊砲兵(迫擊砲 제외)은 自走化되었고, 平射砲도 裝甲을 갖추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戰車와 APC의 裝甲도 補強되어 더욱 과파하기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 APC는 戰車에 비해 比較的 裝甲이 弱하며, 彈藥補給車輛과 射手가 노출된 自走砲는 “軟標的”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戰車나 APC 또는 人員까지도 攻擊할 필요가



獨逸의 LARS

用對効果에 대해 事業中斷時點에서 충분한 解答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英國은 獨·伊와 함께 RS 80의 機能을 戰車 과파를 對象으로 할 것인가, 또는 APC나 裝甲이 약한 車輛을 對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問題와, 敵兵力의 攻擊力を 약화시키거나 敵砲兵사격을 制壓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結論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多聯裝로켓은 本質적으로 地域制壓武器이다. 그래서 RS 80이 野砲(FH 70, SP 70)에 비해 명중율이 떨어진다. 아주 원거리 사격에 있어서 中隊單位目標는 攻擊할 수 없다. 더욱 RS 80의 利點은 大量의 火力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軍需의인 부담을加重시킨다.

要約해서 이 로켓 시스템은 軍需支援이 곤란하고 裝甲車輛(戰車 또는 APC)를 과파하는 基本機能에 대한 費用對効果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했었다.

이 RS 80事業이 中斷된 1975年 이후 어떠한 問題가 대두되어 多聯裝로켓에 대한 새로운 關心이 생겼나를 보기로 하자.

2. RS 80에서 얻은 教訓

RS 80의 開發에 영향을 준 중요한 要因을 도리어 볼 때 첫째로 1975年 이후 對象目標에 변화가 있었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리고 多聯裝로켓의命中率은 砲에 비해 떨어진다. 多聯裝로켓의命中率에 대한 基準은 圓形公算誤差가 射距離의 1%를 超過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砲의 効用性은 점차 再評價되고 있다 對戰車誘導武器와 CLGP를 論外로 한다면, 戰車와 APC는 小爆彈으로 된 ICM彈이나 각종 RDM (remotely delivered mines; 遠隔投下地雷)에 의해 서만 効果的으로 과파될 것이다.

그러므로 大量集中攻擊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口徑과 射距離面에 있어서는 多聯裝로켓 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砲는 ICM彈의 발사에는 적합치 않으며, 도리어 前方 部隊支援을 더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바らく 8인치 口徑의 多聯裝로켓 番頭는 155mm 番頭보다 5倍정도 많은 小爆彈을 收容할 수 있다.

友軍地域 後方에서 발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師團前方에 相互支援이 이루어지고, 縱深目標를 카바하려면 최소한 40~50km의 射距離를前提해야 한다. 그런데 이 射距離는 분명히 砲의 能力 밖이며, 多聯裝로켓만이 가능하다.

물론 중요한 것은 多聯裝로켓의 射distance내에 있는 目標를 捕捉할 수 있는手段를 개발하는 것이다.

目標捕捉만이 아니라, 目標를 照準하고, 그 目標가 파괴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Supervisor" 無人飛行機(RPV) 계획에 의해 RPV가 實用化되고, 적당한 數의 RPV가 실제로 사용 가능하게 되어야만 縱深火力支援을 할 수 있는 目標捕捉能力을 갖게 된다.

3. 多聯裝로케트 必要性의 認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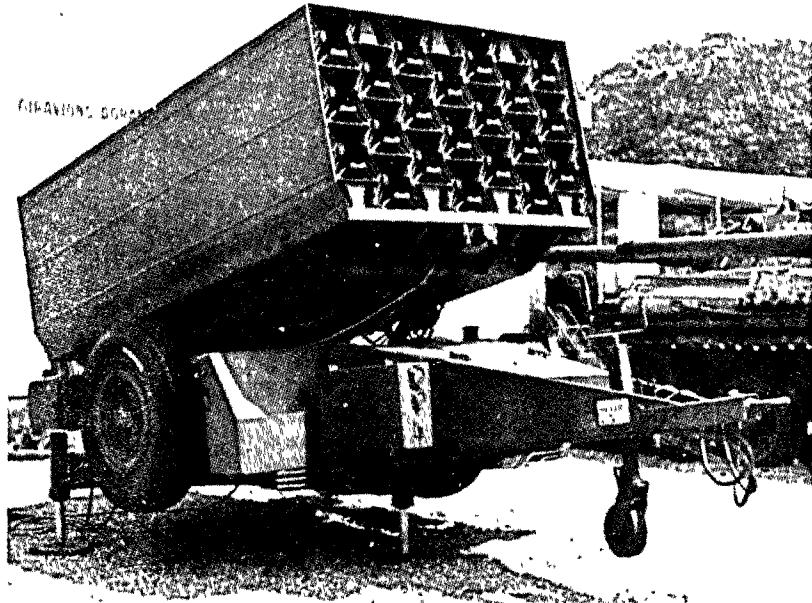
그럼 多聯裝로케트에 관한 논의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이런 目標捕捉能力의 實現으로 多聯裝로

케트를 縱深目標用으로 우선적으로 裝備하는 것이 正當화될 것인가? 또한 파괴력이 增大된 彈頭를 短時日內에 개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問題들이 時間의으로 거의 同時に 提起되기 때문에 狀況을 再評價해야 한다. 첫째, 가까운 將來에 175mm平射砲 M107을 代替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決定을 내려야만 한다. 둘째로, 核運搬手段, 橋梁, 司令部, 對空武器 및 軍需部隊 뿐만 아니라 敵의 裝甲車走砲兵 및 APC에 대해 가장 效果的인 것이 될것으로 보이는 小爆彈頭로케트를 개발해야 할 필요를 切感하고 있다.

HE, 煙幕彈 및 照明彈의 運搬에 있어 짧은 反擊時間과 높은命中率을 요하는 傳統의近接支援任務를 多聯裝로케트가 더 많이 수행하므로써, 多聯裝로케트의 速射能力은 砲의 단점을 補完할 수 있다. 砲彈撒布 小地雷로 戰車를 파괴토록 設計된 多聯裝로케트의 效果에 대해 樂觀的일 수는 없다.

射距離, 彈頭能力 및 彈頭무게를 상호調整하는 데는 균형을 이루도록 留意해야 한다. 만일 RDM이 多聯裝로케트로부터 發射될 때 이 RDM이 훨씬 效果的으로 戰車를 파괴할 수 있다면, 그리고 多聯裝로케트로 RDM을 운반하는 것이 撒布命中度에 있어 技術上 문제가 있다면, RDM을 다른 武



佛蘭西의 牽引型 RA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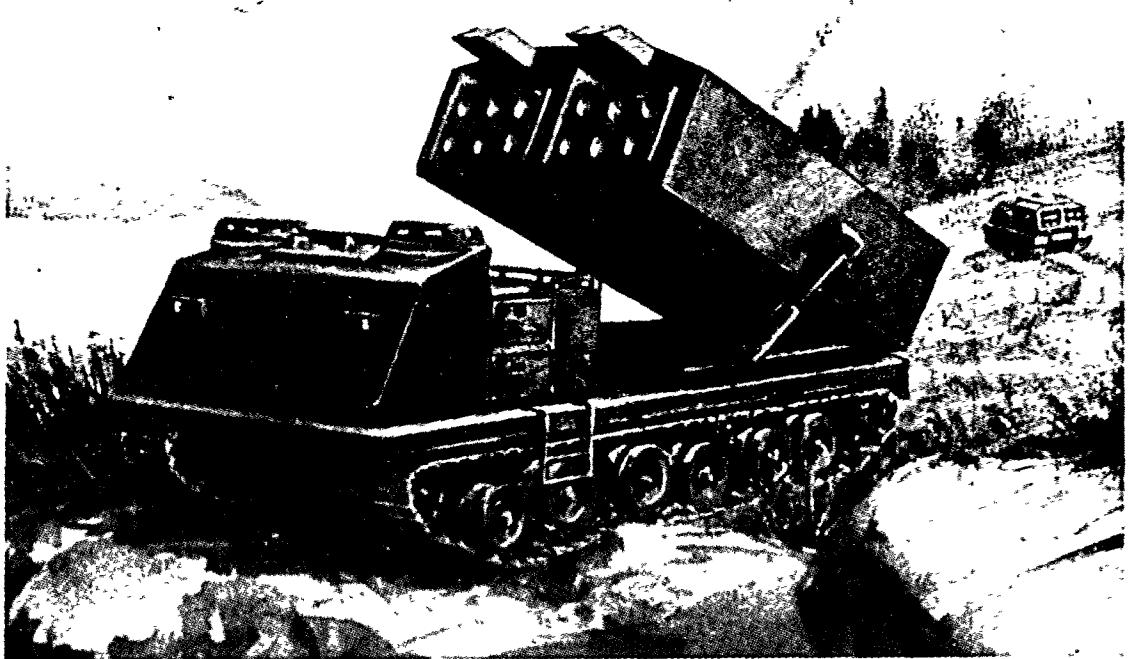
器와 같이 複合的으로 사용하지 않는限, 戰車에 대해 效果의 파괴율을 가질 것 같지 않다.

交戰地域에 敵機甲部隊가 地雷地帶를 통과하여 我軍의 對戰車武器로 攻擊하기 어려운 虛點地帶를 카바하는데 多聯裝로케트의 사용은 理想的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多聯裝로케트는 잘 防禦된 지역을 좁은 隊形으로 공격해 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對戰車武器 및 砲兵火力射程內에서 多聯裝로케트는 이를 火器와 合勢되어 파괴 및 瓦解效果를倍加시킬 것이다. 最後 涉止段階에서 敵은 我軍의 主防禦地域을 둘파하려고 위협할 때 多聯裝로케트는 對地支援航空機와 더불어 완벽한 涉止力으로 로케트彈을 集中投下하는 것이 有効할 것이다.

4. 可能한 解決策

前述한 바와 같은 理由때문에, 英國은 프랑스 및 西獨과 함께 美國의 GSRS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實證된 技術로 제작되는 이 GSRS는 30km 이상의 射距離를 가지며 對戰車 小地雷를 收容한 彈頭뿐만 아니라 對裝甲／對人 겸용의 彈頭를 채택하고 있다.



美國의 GSRS

GSRS는 후의 煙幕 및 化學彈頭와 終末誘導小型群爆彈(Submunition)까지 채택하게 될지 모른다. GSRS發射器는 두개의 彈收容筒(6發入)과 12개의 로케트를 운반하는데, 로케트 하나의 무게는 약 1,000kg이고, 203mm직경의 弹頭를 가졌다. 수행支援車輛으로부터 5~6분 이내에 기계적 방법으로 再裝填할 수 있고, 그火力은 效果的인 對砲兵戰과 大量裝甲隊形을 攻擊할 수 있다. 물론 射距離와 弹頭效率間의 상호조정이 開發段階에서 만족한 결과의 達成如否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射距離는 要求된 距離에 훨씬 못미치지만, 目標捕捉 능력이 현저히 向上될 때까지, 사용하는 데 支障이 없다. 開發이 성공한다고 가정한다면, 小地雷彈頭는 交戰地帶와 그 주변의 機甲部隊를 攻擊하는데 사용하는 한편, 敵野砲나 本部같은 縱深目標에 대해 一次攻擊武器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5. 砲나 로케트나

GSRS가 완전히 開發되면 英國은 對砲兵射擊이

나 縱深火力支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武器를 保有할 수 있다. 동시에 이 武器는 近接支援射擊任務를 위해 裝備하고 있는 砲에 대한 가장 강력한 補完策이 될 것이다.

우리의 樂觀論의 正當性 如否는 단지 時間만이 증명해 줄 것이다. 그러나 多聯裝로케트가 野砲로 수행하고 있는 間接火力支援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는 반면에, 砲의 性能改善은 限界에 다다를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어떤 型態론가 多聯裝로케트가 未來의 戰場에서 ICM彈 발사임무를 맡아야 할 것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問題가 되는 것은 우리가 砲나 또는 多聯裝로케트의 어느것을 必要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 이 兩者를 어떤 比率로 配置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Why Rockets?” *The Royal Artillery*,
Sep. 1978 金英煥譯)